

신년 선물 그림 한점 어떠세요

아트타운갤러리 2월 15일까지
‘우리집에 걸고 싶은 멋진 그림전’

중견작가 100명 작품 130여점 판매
작품 대부분 10호 내외 소품
가격 평소 보다 낮게 책정 부담 덜어



‘우리집에 걸고 싶은 멋진 그림전’을 2월15일까지 여는 아트타운갤러리에 작품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정겨운 새해인사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한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신년선물로 그림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은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광주시 동구 예술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집에 걸고 싶은 멋진 그림전’은 만만치 않은 작품비용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2017년 2월15일까지 중견작가 약 100명 작품 130여점을 판매한다. 대부분 10호 내외 소품들이다. 작가들도 기존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하며 부담을 덜었다. 또 신작들도 대거 선보이며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최근 방문한 갤러리는 30평 남짓한 내

부를 빼곡히 채운 다양한 작품들이 보였다. 작품을 거는 데만 4일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입구에는 이인호 작가 작품을 배치했다. 일반 아크릴 물감이 아닌 풀을 먹인 펄 프록을 캔버스에 붙여 안개꽃을 표현한 시리즈 작품이다. 안개꽃 1~2호는 30만원, 양귀비 6호 60만원, 연꽃 8호 100만원 등이다. 따뜻한 색채를 구사하고 있는 한희원 작가는 신작 ‘고흐·테오 묘’(180만원)를 출품했다. 또 나무판에 가로수와 사람을 그린 작품(100만원)도 선보인다. 정감어린 산수유를 그리고 있는 류재웅 작가는 10호 크기 ‘산수유’, ‘산수유마을’을 250만원에 판매한다.

어린이 그림을 통해 동심을 이야기하는 전현숙 작가는 300만원과 80만원짜리 작품을 내놓았다. 광주아트시내버스(봉선 27)에 참여하기도 한 조근호 작가는 ‘도시의 창’ 시리즈를 140만~400만원, 문명호 작가는 장미(1호), 새벽(2호), 모란(20호) 등을 30만~400만원에 판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정우범 작가는 ‘fantasia’ 시리즈 기존 작품은 호당 30만원, 신작은 호당 5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또 1~2호 크기를 낸 박주하 작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고가 작품도 있다. 전시장 한쪽면을 차지한 임종두 작가의 50호 크기 ‘동행’ 작품은 1600만원이다. 그밖에 조선대 미술학과 2회 졸업생 이

준배 작가의 1970년대 작품을 비롯해 황영성, 우제길 등 지역 원로 작가 작품도 배치했다. 특히 전시장 중간에 자리한 대형테이블(가로5m·세로 1.5m) 위에는 수북히 쌓인 미술 관련 서적이 눈길을 끈다. 민화·서양화·수채화 서적 뿐 아니라 인물사, 대성, 도록 등 약 500종을 비치했다. ‘구상회화의 포커스’, ‘한국현대미술작가전집’ 등 국내 서적과 ‘현대사실주의’ 등 러시아, 프랑스에서 수입한 서적들이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찾는다고 한다. 한편에는 넥타이, 도자기 등 아트상품 판매공간도 마련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곡성 도립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7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29일 곡성 도립사 ‘아미타여래설법도’(阿彌陀如來說法圖)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도립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도립사 보광전의 후불화(後佛畵)로 봉안된 것으로 1730년 승려들이 제작했다. 아미타여래와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등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갖췄다. 18세기 전반기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께 지정예고된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嶺南紀行畵帖)은 진제 김윤겸(1711~1775)이 합천·거창·함양·산청과 부산(동래) 등 영남지역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이다. 18세기 후반 대표적인 경상도 지역 진경산수화로, 고감한 생략, 열은 청색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그밖에 ‘청자 삼강퇴화초화문 표주박



도립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모양 주전자 및 승반(발받침 접시),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청자 투각연당초 문 붓꽃이’ 등 청자 3건이 지정 대상이다. 또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몽산화 상방어약록(언해)’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윤서희·에나킴 일러스트 2인전

내달 15일까지
주안미술관



▶윤서희 작
‘relationship’

윤서희·에나킴 작가가 주안미술관에서 일러스트 2인전 ‘선’(The Line)을 2017년 1월1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그림 그리기의 기본 작업인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인간 관계를 이야기한다. 현대 인간 관계를 재기발랄하게 표현한 일러스트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윤 작가는 보편적인 주제 ‘사랑’을 표현한다. 손을 맞잡은 남녀, 면사포를 쓰거나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 입은 부부를 작품에 담았다. 작품 속 캐릭터들은 관람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풍긴다.

에나킴 작가는 꽃과 여인을 작품에 담은 일러스트 2인전 ‘선’(The Line)을 2017년 1월1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그림 그리기의 기본 작업인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인간 관계를 이야기한다. 현대 인간 관계를 재기발랄하게 표현한 일러스트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윤 작가는 보편적인 주제 ‘사랑’을 표현한다. 손을 맞잡은 남녀, 면사포를 쓰거나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 입은 부부를 작품에 담았다. 작품 속 캐릭터들은 관람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풍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정유년 새해 첫 강좌

내달 2~29일 카페 ‘노블’

다양한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 온 광주시민인문학이 정유년 새해 첫 강좌를 연다. 광주시민인문학은 1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에 걸쳐 전담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39기 정기 강좌를 개최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정규강좌 A타입’은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현대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인간이해의 미학-신체화된 의미와 제감’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한국문학 시간으로 정민구 교수가 ‘현대시 어떻게 읽을까?-인문학적

시 읽기’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요일에는 ‘몸의 철학, 메트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주제로 철학 이론스터디가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청년에게 길을 묻다-대한민국을 읽는 4개의 키워드’와 ‘고전음악과 친화하기-F. J. Haydn 시리즈’를 주제로 토크를 한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정규강좌 B타입’은 이진 교수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인문적 상상력, 대학생활과 글쓰기’와 ‘예비대학생 몰로키움-내 안의 인문학적 물음표?’를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인문여행’은 참가비 별도.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쇼코의 미소’
‘안녕 주정뱅이’
‘너무 시끄러운...’



소설가들이 뽑은 올 최고의 소설에 선정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소설에 ‘쇼코의 미소’, ‘안녕 주정뱅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 3편이 선정됐다. 교보문고의 팟캐스트 ‘남만서점’은 소설가들에게 추천을 받은 결과 ‘올해 최고의 소설’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출간된 소설을 대상으로 70명의 소설가에게 추천을 의뢰했다.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는 우리 사회에 희박해지는 윤리감각을 일깨워준다

는 점에서, 권여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는 비극을 견뎌내는 이들의 송고함을 잘 묘사했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채코문학의 거장 보후밀 허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사색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를 이어 2위 군을 형성한 작품은 ‘너무 한낮의 연애’(김금희) ‘비운 뒤’(월리엄 트레버) ‘상냥한 폭력의 시대’(정이현) 등이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거리 서문입구)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문화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061-392-2114